

# 의자, 서울, 아카이브, 21세기

## Collect, Record, Expand: Chair, Seoul, Archive, 21st Century

### 시팅서울 Seating Seoul

송봉규, 소동호, 양정모 Song Bongkyu, So Dongho, Yang Jungmo

**요약** 서울의 많은 디자이너, 공예가, 건축가들에 의해 생산되고 잊혀져 가는 서울의 의자들을 기록한다. 아카이브를 지속해서 유지 하기 위한 느슨한 연대와 체제, 지구력. 실제로 의자들이 서울에서 소비되고 사용되기 위한 기록, 온라인 아카이브를 넘어선 지형도 그리기

**Abstract** This study records the chairs in Seoul that are being produced and forgotten by many designers, craftsmen, and architects in Seoul. Loose solidarity, system, and endurance is investigated to continuously maintain the archives. Documents for actual chairs being consumed and used in Seoul with drawn topographical maps beyond online archives are examined.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투고일 2023년 7월 8일

심사일 2023년 7월 11-25일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1일

Received Date 8 July 2023

Reviewed Date 11-25 July 2023

Accepted Date 1 August 2023

## 왜 서울의 의자들을 아카이브 하는가

약 5년 전 스튜디오로 일본에서 활동하는 영국 디자이너 크리스가 한국을 방문했다. 예전에 한 번 인사를 한 적이 있는 영국 디자이너는 연말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기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었고, 방문하는 김에 서울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몇 군데 방문해서 한국의 산업 디자이너들의 커뮤니티에 대해서 알고 싶어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규모의 스튜디오인지 주된 클라이언트는 어디인지, 영국에서 자라서 공부하고 아시아, 일본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의 한국, 서울을 바라보는 시각이 궁금했었다.

간단히 근황을 이야기하고, 커피를 마시며 일본의 디자인 스튜디오들의 성장과 쇠퇴, 유럽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아시아에 특히 일본에서 좋은 점,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 차이 등 한참을 이야기 나누었다. 그러던 중 우리 BKID 스튜디오에서 디자인해서 생산까지 한 Iron cast가 전시 되어있는 스튜디오 지하 전시장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Iron cast (주철 - 쇠물을 1,500도 이상 녹여서 모래로 만들어진 틀에 부어서 제작된)로 제작된 스톨과 테이블 등 제품을 보며 흥미로워하던 크리스는 의자와 테이블을 찬찬히 둘러보고 나서 나에게 물었다. “서울에도 의자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이 있어?” 순간 머리에 뭔가 멍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서울에도 당연히 의자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이 존재했고, 한국의 주된 산업이 삼성과 엘지 같은 글로벌 전자제품 회사들이 전체 산업을 이끌고 있지만, 서울의 디자인 씬에서는 많은 디자이너가 꽤 다양한 재료로 개성이 넘치는 의자를 발표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국의 디자이너의 시야에서는 “한국의, 서울의 의자 디자이너”는 아주 생소한 장르였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웃으며 주위에 있는 몇몇 디자이너들의 최신 의자 디자인을 핸드폰으로 보여주고, 서울에서도 의자라는 아이템을 다양한 배경(디자인, 금속/도자 공예, 아트)을 가진 작가들이 선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몇몇 작업은 아주 흥미롭게 보며 왜 이런 재미있는 의자들이 서울의 거리에서는 볼 수 없는지, 왜 카피 된 의자들이 카페를 채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다.

우리에게 의자는 단순히 앉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공간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고(e.g. 다이닝, 라운지), 학교를 졸업하고 독립 후 첫 월급으로 사는 위시리스트 중에 아주 우선순위에 있는 제품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인식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카페를 포함하여 을지로의 가구 판매점에서는 진품보다 가품 의자들을 훨씬



[그림 1] Vitra Campus, Weil am Rhein Switzerland

더 많이 볼 수 있다. 바닥에 앉는 좌식 생활보다 의자에서 생활하는  
입식 생활이 훨씬 편한 현재-서울에서 하루의 반 이상을 몸을 기대어  
앉는 의자.

서울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에게 의자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크리스처럼 서울 디자이너들의  
활동을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 혹은 서울에 살면서 새로운  
의자를 하나 사고 싶은 한국인들에게, 서울의 의자들이 하나의 온라인  
공간에 모여 있다면 어떨까? 시간이 많이 지나 의자를 가지고 누군가  
21세기의 서울을 설명하려고 할 때,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의미지와  
텍스트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서울에서 디자인되고 발표된 의자들을 한번  
아카이브 해보자.

### 의자, 도시의 자부심

4년 전 코펜하겐에 있는 덴마크 디자인 박물관에 방문했을 때, 한스  
베그너의 Y-체어와 명나라 때 만들어진 의자를 하나의 공간에서  
최초의 프로토타입과 현재까지 변형되어 판매되고 사용되는 의자까지  
연도별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허름한  
아파트에 에어비엔비로 묵었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숙소임에도  
불구하고, 프리츠한센의 스완체어와 CH88 등 꽤 고가의 가구를



[그림 2] Vitra Campus, Weil am Rhein Switzerland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 수더분한 에어비앤비 주인도 몇 년도에 생산된 것인지 현재와 다른 빈티지 만의 특징들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설명해 주었다.

명실상부 가장 아름다운 가구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코펜하겐은 그렇게 의자를 포함한 가구에 대한 애정과 정보를 일상에서 향유하고 있었다. 어딜가나 다양한 의자들을 볼 수 있었고, 몇십 년이 훌쩍 넘어 보이는 빈티지 가구부터 공원, 박물관, 공항에 무심히 놓여있는 가구들의 세밀한 디테일과 조명의 따뜻한 색감은 하나의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얼마 전 코펜하겐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이자 케비넷 메이커인 라스무스 펜한(Rasmus Fenhann)의 스튜디오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크리스가 나에게 질문한 것처럼 라스무스에게 질문했다. “왜 덴마크에는 이렇게 디자인이 잘 된 의자들이 많은가?” 그의 답변은 꽤 싱거웠다. “덴마크에는 좋은 디자인의 의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의자를 주제로 저녁 시간에 오랜 시간 동안 대화할 수 있다” 마치 한국이 매일 매일 김치를 먹기 때문에 가장 다양하고 맛있는 김치를 필연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많이 소비하고, 생활에서 향유하며, 거실 공간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하며 사용하는, 그리고 좋은 컨디션으로 중고로 판매하는 빈티지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는, 너무나 부럽고 자연스러운 그들의 생활의 일부분인 것이다.





[그림 3] Seating Seoul

## 가구 디자인의 지형도

2019년, 스위스의 가구 브랜드 비트라에서 발행한 Atlas of Furniture Design. 가구 디자인의 역사, 가구 디자인의 아카이브 등 많은 단어를 두고 Atlas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방대한 비트라 아카이브를 정리했을까? 237년간 생산된 1,740점 가구로 구성된 비트라의 방대한 아카이브를 소개한 책. 주로 유럽의 가구들이 많고, 가끔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고가구들이 등장한다. 크리스의 다소 황당한 질문이 이해되는 내용이었다.

건조한 정보 중심으로 약 2page에 걸쳐 소개되는 의자를 포함한 가구들은 동시에 주요한 세계사들과 함께 나열이 되어있었고,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까지 조금은 건조한 주석들과 레퍼런스들로 채워져 있었다. 캔틸레버의 구조에 포함되는 장르에서는 연도별로 재료별로 섹션별로 어떤 경향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다. 일종의 계보도인 것이다. 또한 어떠한 기계로 어떤



공정으로 제작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일러스트레이션도 쉽게 표현되어 있다.

아카이브는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해 놓는 것, 지형도를 그린다는 것은 각 정보의 상관관계, 흐름, 순서, 구분을 해 놓은 것이고 또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정보를 엮어내는 것이다.

#### 아카이브, 느슨한 연대와 지구력

Seating Seoul의 아카이브 시작은 영국 디자이너의 다소 황당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에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디자이너와의 대화에서 좀 더 구체화되어 갔다. 우선 예전에 스튜디오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양정모 디자이너와 ‘서울의 의자를 아카이브 해보면 어떨까’라는 대화를 나누었고, 서울의 거리의 의자를 아카이브 하고 있던 소동호 작가가 이후에 합류하게 되었다. 초기에 리스트업을 중심으로 느슨한 모임을 만들어 가다가 코로나 시기에



[그림 4] Seating Seoul

서울역 284에서 전시 공모 형태로 제안하게 되고 첫 번째 아카이브를 전시하게 된다. 포스터와 초기 웹사이트는 홍은주, 김형재 디자이너와 함께 진행했다.

이후에 우리들의 아카이브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김상규 교수님, 육상수 대표님, 구병준 대표님을 통해 우리의 계획을 알리고 첫 번째 전시에 대한 글을 부탁드렸다. 새로운 아카이브에 대한 흥미와 트렌드 하지만 한 조형에 대한 경계, 서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서울의 의자. 여러가지 앓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글이었다.

최근에 조옥님 님이 합류하면서 다시 한번 느슨한 아카이브 연대에 대한 재정비를 가지려고 한다. 1년에 2번의 정기 모임과 아카이브에 대한 합리적 기준, 기록해야 하는 정보의 정의, 아카이브





[그림 5] Seating Seoul

하는 방식, 오브젝트 외에 창작자, 인물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좀 더 아카이브에 대한 의미 확장을 논의했다. 코어 멤버와 게스트 아카비스트, 어드바이저, 상징적 100개의 21세기 서울의 의자들을 서울이 아닌 다른 물리적 해외의 공간에 연출을 해본다거나. 이 주제에 대한 여러 느슨한 연대와 각자의 지구력을 바탕으로, 해마다 여러 전시를 통해 소개되고 잊혀지는 서울의 의자들을 기록하고 공유해 나가려고 한다. ㉔





[그림 6] Seating Seoul



